

‘막장’으로 출발 ‘명품’으로 끝난 ‘돈꽃’



MBC 주말 드라마 '돈꽃'이 자체 최고 시청률인 24%(닐슨코리아 집계)를 기록하며 지난 3일 성황리에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엔 그렇고 그런

'막장' 드라마처럼 보였지만 김수목 '명품'의 향기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돈꽃'은 지난해 11월 11일 첫회에서 10%를 조금 넘는 시청률로

출발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후의자였기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장혁)의 복수극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끌었음을 뿐 신선함은 떨어졌다. 출생의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한 장혁, 절제된 감정 연기로 눈길잡아 재벌가의 암투 색다르게 그린 이명희 작가의 감각적 스토리

비밀, 불륜과 치정 등 주말극에서 그간 다뤄온 '막장'을 재연할 게 뻔했다.

그러나 장혁·장승조·박세영·이미숙 등 배우들의 연기 하모니와 이명희 작가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그리고 연출자인 김희원 PD의 영상미가 잘 맞아떨어지며 주말 드라마의 고정관념을 깼다.

복수의 화신으로 등장한 장혁은 '추노'(2010) 이후 오랜만에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얼굴 표정과 대사에서 힘을 뺐지만 절제된 감정 연기로 오히려 훨씬 강렬하고 극적인 캐릭터를 창조했다. 마지막 회에서 스스로 법정에서는 회생을 무릅쓰며 끝내 상대를 무너뜨리는 대목에선 서늘한 카리스마가 엿보였다.

이명희 작가는 전작 '장영실'(2016)에서 진일보한 집필 감각과 리얼리티로 믿고 볼 수 있는 작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재벌가의 암투라는 혼란 소재를 다루면서도 낯아 보이지 않도록 대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절묘하게 버무려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재창조했다. 특히 때회 반전과 카타르시스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희원 PD의 클로즈업 카메라 워크도 한몫했다. 눈썹에서 턱선까지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 타이틀 클로즈업 또는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표현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배우들의 표정 연기를 고스란히 잡아냈다.

이야기의 흐름은 매우 빠르지만 배우들의 감정 연기는 느릿느릿 여백을 뒤 감각을 잘 조절했다.

시청자들은 "장혁 씨 너무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토요일 밤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네요. 항상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대본 대사 행간도 주

위 공기 분위기도 연기로 승화. 몰입도 최고로 이른 필주, 감동, 작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말없이 눈빛으로 더 많은 대사를 읊은 느낌. 작가도 대단한 듯"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돈꽃'은 월화, 수목 등 미니시리즈로 대변되던 방송국의 편성 관행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국에서 우선시하는 중요도나 배우들의 선호도 측면에서 주말극이 미니시리즈에 늘 뒤지는 구조였다. 미니시리즈가 광고 판매에 유리하고 그만큼 배우들의 출연료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TBC '볼위있는 그녀', KBS '황금빛 내 인생' 등이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으면서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고,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도 다양화되면서 드라마 편성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속 '죽은 자들'의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유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코코'가 지난 주말 3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멕시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겪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소년과 죽은 자들의 세상을 연결한 상상력이 흥미롭다. 그런데 '코코'만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 극장가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 저승이 주요 배경인 영화들이 잇달아 개봉돼 화제를 모았다. '신과 함께-죄와 벌', '원더풀 라이프'도 죽은 자들의 세계를 비중 있게 다룬 작품들이다.

이들 영화는 제작 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으로 다르고 극영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다르고, 세부 내용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세 편 모두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과 함께-죄와 벌'은 14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영화 흥행 톱3에 올랐고, 세계봉 작품인 '원더풀 라이프'도 개봉 초기 다양성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저승을 실제로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해 지하 세계를 그려 왔다. 수많은 신화나 전설에 저승이 나오고 저승을 체험한 신화적 인물도 다수 등장한다. 수베르신화의 이난나, 그리스로마신화의 오디세우스, 우리나라 무속신화의 바리공주 등이 지하세계를 다녀온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신과 함께-죄와 벌', '원더풀 라이프', '코코'가 묘사하는 저승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신과 함께'의 공간은 지옥이다. 소방관이었던 망자 자홍은 7개의 지옥을 지나면서 살인, 내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과 관련된 죄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은 후에야 환생할 수 있다는 관념을 전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원더풀 라이프'는 이승과 저승의 중간 지대인 림보라는 곳이 배경이다. 죽은 자들은 이곳에서 '난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선택한 후, 그 추억만을 가지고 저세상으로

간다. '코코'는 미구엘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고, 이를 통해 증조 외할머니 코코와 아버지의 만남이 이뤄지도록 만든다. '코코'의 저승은 이승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세 편의 영화에서 이승과 저승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승에서의 삶이 저승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과 함께'의 자홍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 재판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코코'의 미구엘은 음악 때문에 집을 떠났지만 끝까지 딸과 가족을 사랑했던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 그의 한을 풀어준다. 이때 코코가 아버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두 영화에서 이승과 저승은 다리 혹은 강으로 연결돼 있다. '원더풀 라이프'의 인물들은 이승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모치즈키와 시오리가 일하는 림보는 현실 세계의 직장과 매우 비슷한 위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처리 방식도



이승의 직장과 똑같다.

각 영화의 인물들이 묶여주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가족이다. 자홍과 동생 수홍 어머니는 신과라는 비판이 나왔을 만큼 전형적이고 통속적인 방법으로 가족애를 표현한다. '원더풀 라이프'의 인물들이 선택하는 추억 역시 대부분 가족과 관련돼 있다. 어렸을 때 오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일, 아이를 낳던 순간, 지진을 피해 들어갔던 나무 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먹던 일 등이다. 시오리가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던 추억을 선택한 여학생에게 무릎을 꿇고 누워 어머니의 밤 새를 말던 일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코' 역시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가족애가 핵심적인 주제이다.

한(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주목을 끈다. 한국과 일본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각 영화의 인물들은 모두 한을 품고 있으며, 저승에서 이 한을 풀고 새로운 생을 맞이한다. '신과 함께'에서 자홍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한으로 남아 있다. 수홍은 제대 2주를 남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 원귀가 된다. 승진에 눈이 먼 장교에 의해 산 채로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코'의 헤렌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오해, 자신이 만든 노래가 다른 가수의 작품으로 소개돼 히트한 점 등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

세 영화의 공간과 인물이 사실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환생하거나, 같이 해소된 상태로 이승으로 귀환하거나, 천국으로 간다. 저승이 어둡고, 황량하고, 불과 얼음으로 가득하고, 끔찍한 세계라는 기존 인식과 다른 점이다. 게다가 세 편의 영화는 가족애의 회복, 한

의 해소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이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말은 관객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죄만 짓지 않는다면 사후세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이들 영화가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장르적으로 판타지인 배경이다.

로지 잭슨에 의하면, 환상은 부재, 결핍, 상실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자주 괴물이나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신과 함께-죄와 벌'과 '원더풀 라이프', '코코'처럼 현실에서의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대신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영화의 저승은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특징은 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비결의 하나일 것이다. 눈물겨운 가족애가 넘치고, 이승의 한을 풀어주고, 이승보다 더 인간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신과 함께-죄와 벌'에서는 열라대왕조차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검사들은 자홍의 사연에 눈물을 흘린다. 저승이 오히려 날마다 합약한 사건 사고가 횡행하는 현실보다 인간미가 넘치는 곳으로 나온다. '코코'도 '원더풀 라이프'도 마찬가지이다. 즉, 저승은 현실에 부채지는 환상의 세계이다.

게다가 세 편의 영화에서 저승은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따뜻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가 그만큼 흑흑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래도 영화를 통해 서너마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신과 함께, 원더풀 라이프, 코코는 영화의 역할을 세심하게 생각해 만든 작품들이다.

‘日 최초’ 엑소, 첫 싱글·앨범 모두 오리콘 차트 1위

그룹 엑소(EXO)의 일본 첫 정규 앨범 'COUNTDOWN(카운트다운)'이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발매된 엑소의 일본 첫 정규 앨범 'COUNTDOWN'은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위클리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 뜨거

운 엑소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특히 엑소는 2015년 발표한 일본 첫 싱글 'Love Me Right ~romantic universe~'(러브 미 라이트 ~로맨틱 유니버스~)로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앨범으로도 위클리 차트 1위를 기록, 해외 그룹 최초로 첫 싱글, 첫 정규 앨범 모

두 위클리 차트 1위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워 현지에서의 높은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에 오리콘은 8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EXO, 일본 첫 앨범 1위, 해외 그룹 첫 기록 등라는 제목으로 이번 1위 소식을 전하며 "해외 그룹이 첫 싱글, 첫 앨범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음력 12월 22일)



▶**성운** 예민한 성격과 신경과민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법. 한 곳에 과하게 집착하는 일은 삼가라. 6, 7, 12월생 마음에 목표를 뒀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물들지 말라.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만인의 부러움을 받을 수. 남향으로 대인관계를 넓히라.



▶**사해** 2, 3, 5월생 매사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라. 타인의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든가, 대담한 마음 자세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라. 기, 오, 자, 을 성씨 과거 직종에서 실패했다라도 지금 직종에서는 승부를 걸라.



▶**황용** 쓸데없는 고집으로 가정에 파문이 일겠나. 순리에 응하고 해결책을 찾으라. 1, 3, 10월생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행위는 인내와 참을성 부족이다. 쥐, 말, 원숭이, 닭띠를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라.



▶**진토끼**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니 만사가 귀찮고 짜증만 생기는 격. 심신 안정을 기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설계와 준비성이 필요할 듯. 기, 을, 을 성씨 미혼은 마음이 천사표나 따르는 이가 없다.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용띠** 나, 사, 을 성씨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라. 당신은 현실 도피를 합리화해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음을 알라. 쓸데없는 망상은 자신을 추하게 만든다. 4, 7, 9월생 진보적인 삶을 위해 자아를 성찰하고, 선배를 가까이하라.



▶**진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때. 2, 5, 7월생 힘들다 해도 업종 변경이 해법책은 아니다. 멀리 보라. 서항에 범, 원숭이 띠가 있으면 도움을 청하라. 조건 없이 믿음직한 귀인이 될 듯.



▶**황마**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숨은 능력을 발휘하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뚝뚝이 밀고 나가면 당신의 숨은 재주를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된다. 기, 오, 을 성씨 감정 표현이 과하면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황염**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타인과, '착' 하는 자세를 버리라. 나중엔 들뜬 나기 마련이다. 겸손할 줄 알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듯. 기, 을, 을 성씨 부부간 지나친 자존심 내세우기는 화근을 가져오기에 십상이니 자중하라. 비밀이 들뜬 날.



▶**황원숭이** 가슴을 저미는 슬픔과 고난까지도 견뎌낼 때 당신의 자아가 벌떡 일어서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기, 을, 오, 자 성씨 사랑하는 이는 꾸미지 않고 순수한 당신 모습을 사랑하니 굳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황닭** '꾸준함=성공'이라는 공식을 가까이할 때. 새로운 변화보다 현재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 듯. 1, 3, 8, 9월생 포부는 크나 진행이 늦어져 답답하다. 이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탓으로 곧 풀리고 성숙도 또한 높아질 수.



▶**황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다. 기, 오, 을 성씨 범, 용, 뱀, 말띠가 마음도, 육체도 방향하는 격이니 용기백배해서 단단히 잡으라. 직장이나 사업에도 그 여파가 클 것 같다.



▶**황돼지** 작은 정보도 모아두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은 일도 소중히 처리함이 좋을 듯.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기, 을, 을 성씨 자신을 초월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위인이다. 자신을 이기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라.